

하루를 시작하며



정한석 전 초등학교 교장·수필가

오늘날 인간 삶의 공동체는 인간애(人間愛)를 바탕으로 인종·민족·국적의 차별 없이 인류 전체를 널리 사랑하여 세계 평화를 이루자는 인도주의 정신과 맥을 같이하는 인류 공동체로 급변하고 있다.

인류 공동체 발전과 국제연합

를 널리 사랑하는 평화로운(좋은·행복한) 삶을 검토해봄으로써 보다 나은(좋은·행복한) 인류 공동체 발전 방안을 모색해 볼 수 있다. 먼저 국제연합의 구성 단위는 개별 국가임을 알 수 있다.

에 의하면 배경은 '모스크바선언, 1944 담버턴오크스회담, 1945 알타 회담, 1945 샌프란시스코회의에서 헌장제정, 1945. 6. 26 채택'을 그리고 특징으로는 '미소 양국의 적극적 참여로 출범, 주요 기관과 다수의 전문 기구의 설치를 통하여 거의 모든 방면의 국제업무 취급 가능, 만장일치 제 대신 다수결 주의 채택, 안보리는 국제연합의 핵심 기관'을 들 수 있다.

모든 구성원들에게 공통되는 보편적 가치에서 모색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인종·민족·국적의 차별 없이 인류 공동체 모든 구성원들이 아우르고 한데어리코 조화하여 보다 평화롭게(좋은·행복하게) 살 수 있는 필수 요소는 '인류 공동체 구성원 모두에게 보편 타당한 규범'임을 발견할 수 있다.

열린마당

에너지 아껴 용돈 쟁기는 일석이조의 제도



박은영 서귀포시 안덕면사무소

외출 시 쓰지 않는 가전제품의 플러그는 뽑아두고 나오는가? 자가용 대신 대중교통을, 일회용 비닐봉지 대신 장바구니를 이용하고 있는가? 만일 맞다면 일상생활 속 녹색생활을 실천하는 친환경 소비자라 할 수 있다.

위시간 1분 더 줄이기, 양치할 때 컵 사용하기, 자전거나 대중교통 이용하기, 쓰지 않는 가전제품의 플러그 뽑아 두기 등 우리 생활 속 사소한 것에서부터 시작할 수 있다. 더불어 서귀포시가 운영하고 있는 '탄소포인트' 제도는 녹색생활을 실천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뉴스-in

“재정을 통한 경제 수요창출 필요한 시기”

원 지사, 특단대책 지시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이를 연속 지역경제활성화 차원에서 재정집행을 제고대책을 역설하며 대책마련을 촉구. 원 지사는 5일 주간정책조정회의에서 “경기침체로 민간경제 활력이 둔화되고 있어 재정을 통한 경제 수요창출이 꼭 필요한 시기”라며 “경제활성화를 위해 재정집행률 90% 이상 달성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수립하라”고 지시.

아들이 이 사건을 모르고 살았으면 좋겠다”고 호소했지만 일부 언론은 고씨가 범행 직후 아들과 나눈 대화 내용까지 여과없이 보도. 이를 두고 한 기자는 “이런 보도들이 기록으로 남는데 과연 유족이 그날의 기억을 잊고 지내며 살아갈 수 있겠냐”고 한탄. 이상민기자

자극적 보도에 2차 피해 우려

○...고유정 살인사건에 대한 일부 언론의 자극적 보도 행태가 유족을 향한 2차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 지난 14일 유가족 측은 “피해자 아들과 관련된 내용은 (기사에)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다. 피해자

불량 농약방제복 파악중

○...서귀포시가 고령농업인을 대상으로 처음 지원한 농약방제복 사업과 관련, 제품 불량으로 인한 민원이 이어지자 지원 농업인에게 메시지를 보내 불량 여부를 확인중. 이는 시가 올해 65세 이상 농업인의 신청을 받아 80% 보조사업으로 방수성·통기성을 갖춘 기능성 농약 방제복 4600벌을 보급했는데, 방수기능 불량을 겪은 농업인이 적잖은데 따른 조치. 시 관계자는 “불량품은 타 회사 제품으로 교환해줄 방침으로, 조만간 시제품을 받아보고 꼼꼼히 확인한 후 교환작업에 나설 것”이라고 언급. 문미숙기자

사설

손실금 때우려고 누가 경관작물 심겠냐

다소 낮은 '경관보전직불제'라 는게 있습니다. 농지에 일반작물 대신 경관작물을 재배할 경우 소득 손실액을 보조금으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지역 실정에 맞는 유채나 메밀 등 경관작물을 재배해 농업인의 농외소득으로 올릴 수 있습니다. 이런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경관보전직불제사업이 제주지역 현실과 맞지 않다는 지적입니다. 제주도는 지역별 특색있는 경관작물을 재배, 지역축제 등과 연계한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경관보전직불제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원액은 ha당 경관작물은 170만원, 준경관작물은 100만원입니다. 경관작물 식재 면적은 마을단위(지구) 및 필지별로 집단화돼야 합니다. 하지만 이같은 집단화 등의 적용 조건은 경작지가 작은 제주 실정과 맞지 않고 지원금도 적어 농가들이 외면하고 있습니다. 실제 서귀포시 안덕면 서광리 주민들은

경관보전직불제에 참여했다가 일부 밭 주인이 다른 작물 소득보다 적다며 빠지자 아예 사업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우도에서도 경관작물 유채를 재배했다가 직불금이 적어 포기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관보전직불제가 농외소득 향상이라는 취지는 좋지만 문제는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점입니다. 우선 지원조건인 농지 규모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집단화 최소 면적이 경관작물 2ha 이상, 준경관작물 10ha 이상입니다. 한 농가가 한곳에 소유하기도 쉽지 않지만 이런 대규모 농지에 누가 경관작물을 심으려 하겠습니까. 그렇다고 직불금이 많은 것도 아닙니다. ha당 170만원입니다. 그 리니가 최소 면적인 6000평에 경관작물을 재배할 경우 받을 수 있는 직불금은 340만원에 불과합니다. 경관보전직불제를 마치 못해 시행하는 것이 아니라면 지원금을 대폭 상향하는 등 제주 실정에 맞게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장기간 방치 평택항 물류센터 반쪽 재개

개점휴업 상태였던 평택항 제주 종합물류센터 운영이 일단 승통이 트일 전망이다. 제주도는 내 차례 입찰에도 사업자가 나타나지 않자 최근 경기도 한 농업법인과 3년간 수익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장기간 방치됐던 물류센터가 이달 18일부터 재가동될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만 반쪽 재개에 그쳤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반 물류 유통이 이뤄지게 되면서 제주산 농축수산물 수도권 공급 기지로서의 기능회복은 갈 길이 멀다. 막대한 혈세가 투입된 제주물류센터는 애물단지나 다름없습니다. 2013년 국·도비 등 48억여 원을 들여 물류센터를 건립했지만 재가동될 때까지 아무런 전진행정의 표본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누구 하나 책임은커녕 어영부영식으로 흘러왔습니다. '돈먹는 하마'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사업비 외에도 올해까지 6년간 투입된 예산만도 부지임차료 19억5400만원, 유지보수비 2억 등 총 21억5000만원에 이

릅니다. 총 70억 원에 달하는 혈세를 낭비한 꼴입니다. 연간 40억 원의 제주산 농축산물 물류비가 절감될 것으로 예측됐지만 정반대인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애물단지'니 '돈먹는 하마'니 하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물론 물류센터가 표류하게 된 것은 제주항·평택항 항로의 화물선 운항 중단 등 외부환경 변화 탓도 있습니다. 하지만 다각적인 분석과 활용방안 마련 및 대안까지 심도있는 고민이 부족했다는 점에서 제주도의 책임이 큼니다. 지난 달 국정감사에서 실적 쌓기에 급급해 추진한 전진행정의 표본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누구 하나 책임은커녕 어영부영식으로 흘러왔습니다. '돈먹는 하마'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사업비 외에도 올해까지 6년간 투입된 예산만도 부지임차료 19억5400만원, 유지보수비 2억 등 총 21억5000만원에 이

\* '오피니언' 면의 외부필자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부고 고영삼(제주중학교 교사) 아버지 제주고공 회상(중신교회 집사·향년 84세)께서 서기 2019년 11월 5일 00시 48분경에 별세하셨기에 삼가 알려드립니다. ▶일 포: 2019년 11월 6일(수) ▶발인일시: 2019년 11월 7일(목) 오전 7시 ▶발인장소: 부민장례식장 3분향실 ▶장 차: 양지공원→한울누리공원 아 들 고영삼 며느리 양신옥 영수 고복련 영승 이정미 딸 고명희 사 위 유승수 은희 김준경 \*연락처: 고영삼 010-7584-5984 고명희 010-9556-4241

부고 한성용(한국수달연구센터장) 어머니 밀양박씨 순여(향년 90세)께서 서기 2019년 11월 5일 07시 34분경에 별세하셨기에 삼가 알려드립니다. ▶일 포: 2019년 11월 7일(목) ▶발인일시: 2019년 11월 8일(금) 오전 9시 ▶발인장소: 부민장례식장 2분향실 ▶장 차: 덕천리 가족묘지 아 들 한성용 며느리 오지영 지용 강선희 딸 한서연 사 위 전영번 금순 오석훈 금미 오석훈 금실 장필진 금란 이상현 \*연락처: 한성용 010-4050-5975 한지용 010-3217-5975 한서연 010-8552-1293 한금순 010-2691-4200 한금실 010-6296-7579 오석훈 010-2690-3369 전영번 010-8660-1293 한금란 010-8260-5974

감사의 말씀 이번 저희 어머니 경주김씨 하옥(향년 97세) 상시에 바쁘신 중에도 정중하게 조의를 베풀어 주신데 대하여 마음속 깊이 감사드립니다. 일일이 찾아 뵈움이 도리어 오나 경황이 없어 우선 지면을 빌려 인사를 올립니다. 아 들 진영길 며느리 강인자 손 자 진창현 승현 손 부 고늘봄 손 녀 진은경 손 서 한대헌 수경 현재욱 2019년 11월 6일

감사의 말씀 이번 저희 어머니 제주고씨 현아(향년 91세) 상시에 바쁘신 중에도 정중하게 조의를 베풀어 주신데 대하여 마음속 깊이 감사드립니다. 일일이 찾아 뵈고 고마운 말씀을 올림이 도리어오나 우선 지면을 빌려 인사를 올립니다. 2019년 11월 6일 아 들 황운성 딸 황미자 사 위 강영준 애 자(연다) 김동남(연사노) 명 자(연다라) 고동오

감사의 말씀 이번 저희 어머니 원주변씨 춘자(향년 92세) 상시에 바쁘신 중에도 정중하게 조의를 베풀어 주신데 대하여 마음속 깊이 감사드립니다. 일일이 찾아뵈우고 고마운 말씀을 올림이 도리어오나 우선 지면을 빌려 인사를 올립니다. 2019년 11월 6일 아 들 안창수 며느리 김충곤 창완 강순복 딸 안인선 사 위 고성하 여진 희진 문양웅 금순 김석중

탁월한 선택! 확실한 광고 효과 한라일보 광고문의 750-2828 서귀포지사 732-5552

하귀농협장례식장 제주시 애월읍 애초로 405 (노형에서 10분 거리) 독립적인 5개의 고품격 분향실 독립적인 상주휴게실 및 편의시설 하귀농협직영 합리적인 장례비용 동시주차 500여대의 넓은 주차장 타 장례식장 대비 저렴한 식비 (6찬제공) 하귀농협 하나로마트 직영점 운영 노형에서 10분거리 (대중교통이용가능) 24시간 무/료/상/담/실/시 24시간/대기 T.798-8800